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 담론과 기행문 연구

김경남*

|| 차례 ||

- I. 서론
- II. 1920년대 전반기의 기행 담론과 기행문의 특징
 - 1. 1920년대 기행 담론과 기행문의 분포
 - 2. 기행 체험과 사실적 재현
 - 3. 자의식과 국토 의식의 성장
 - 4. 해외 기행 및 유학생 담론
- III.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20년 4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동아일보』에 소재한 기행 담론과 기행문 자료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1920년대 전반기 기행문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행 담론의 분포에서는 ‘취재기’ 형식의 기행문(25종)과 ‘국토 답사’ 형태의 기행문(15종), 유학 관련 담론(10편)이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취재기는 기자의 취재기나 탐방기가 중심을 이루며, 국토 답사의 경우 특정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기행문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행 체험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차원에서 이 시기 기행문은 보편적 글쓰기의 한 양식으로 변화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1908년 『소년』 창간 이후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20년대 전반기의 경우 기행문은 체험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성과 비판 의식이 내재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 건국대학교 글로컬 소통·통섭 교육원 강의를 교수.

셋째, 1920년대 전반기 기행문에서는 자의식과 국토 의식의 성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개벽사의 '조선 문화 기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에도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비롯한 국토 기행문이 다수 게재되었는데, 이러한 의식의 뿌리는 1910년대 최남선의 역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해외 기행과 유학 담론의 변화이다. 특히 해외 기행의 경우 만주와 중국 기행문이 많으며, '독일',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유학 담론과 유학생기가 다수 출현한다.

주제어 : 기행 담론, 기행문, 동아일보, 사실성, 재현

I. 서론

기행문은 여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을 의미한다. 여행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을 다니는 것으로, 기행(紀行) 자체는 자아의 의미를 자각하고 체험의 폭을 확대하며, 그에 대한 독자와의 교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근대 문학 형성 과정이나 문체 발전 과정에서 기행문이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신파조의 신소설에서 무정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계몽적 자의식의 성장이나 사회상에 대한 사실적 재현은 기행 체험의 문장에서 진화한 것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대부분의 신소설 작가와는 달리 1910년대 이광수는 '동경잡신', '대구에서', '오도답파여행' 등 수많은 기행문을 남겼다. 이는 소년 사상을 전제로 한 최남선이나 1920년대 현진건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근대 신문 기사의 전형적인 문체가 전언체(傳言體)의 '한다더라'에서 사실 기록의 '한다'로 진화하는 과정에도 기행문의 사실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기행문이 '살아 있는 글'이며, 곧 '기행 체험'이 '자의식의 성장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행문은 '시대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비록 근대의 기행 담론이 관념적 계몽성을 띠거나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명개화

의 논설에 그친 경우가 있고, 관광단이나 유람단 또는 시찰단이라는 명칭의 식민성을 띤 문화 침탈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도 있었지만, 살아 있는 기행문은 시대의 창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장한몽의 작가 조일제가 1914년에 쓴 ‘주유삼남(周遊三南)’에서는 대구 정거장의 호객 행위의 모습이 경상 방언 그대로 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행문은 단순한 스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진화하며, 시대와 사회의 실상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근본적으로 기행 체험은 호기심을 해소하고 지식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기행 담론은 기행 체험을 직접 기술한 글은 아니지만, 여행이나 해외 유학 등과 같은 기행 체험의 의미에 관한 인식을 담은 글을 의미한다. 담론의 변화는 기행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개인적·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식견(識見)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온 기행 담론은 근대 이후 사실성과 심미적 차원에서 더 심층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현 단계 기행문 연구는 담론보다 기행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 대상도 유학생의 기행문이나 최남선의 기행문, 1920년대 국토 체험과 관련된 기행문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의 기행문은 일부 언론사와 잡지사가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국토 순례 기행’, 해외 유학생의 보고,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 답사기와 탐방기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이를 주제로 한 연구로는 김현주(2001), 김진량(2004), 김중철(2004)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김진량(2004)은 근대 일본 유학생 기행문의 전개 양성과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했는데,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는 산업화된 일본에 대한 경탄과 유학비 부족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또한 김중철(2004)에서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의 근대 기행 담론 속의 기차와 차내 풍경을 다루었는데, 이 또한 기차에 대한 경이와 찬탄, 속도와 규율 등

의 식민지적 공간의 특수성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근대 이후의 기행 담론과 기행문에 관한 연구 경향은 분포 자료와 견주어 보았을 때, 1920년대의 기행문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1920년대 전반기(1920.4.~1924.12.) 동아일보에 실린 기행 담론과 기행문을 중심으로, 기행문의 양적 성장 과정과 시대 의식을 고찰함으로써, 이 시기 기행문의 가치를 연구한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 1920년대 전반기를 설정한 이유는 일제가 치안유지법(1925년1월)을 공포한 이후, 기행 담론이나 기행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식민 조선 내의 사상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 또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II. 1920년대 전반기의 기행 담론과 기행문의 특징

1. 1920년대 기행 담론과 기행문의 분포

1920년대의 기행문은 1910년대 『매일신보』나 『청춘』에 소재한 취재기, 유학생기, 답사기 등의 기행 자료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920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1925년 1월 ‘치안 유지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이 신문에 소재하는 기행 관련 자료는 대략 85종(연재물은 1종으로 처리함) 500회가 발견된다. 이들 자료 가운데 일부는 기행 관련 논설이나 명승·사적 사진 해설, 또는 유람회 관련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행문의 발전 과정에서 이 시기의 기행 담론은 관제화된 유람 문화나 관념적 계몽성을 탈피하여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낸 것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른바 ‘문화 통치’라는 슬로건에 숨어 있는 ‘조선의 현실’이 기행 담론 속에 그려져 있는 셈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DB의 분석 항목은 게재일(연재물일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로 나눔), 문종, 제목, 세부 내용, 필자, 성격, 기행지 등을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문종’은 ‘기사’, ‘기행문’, ‘논설’, ‘편지’ 등을 설정하였으며, ‘내용’에서는 ‘국토 기행’, ‘명승(고적)’, ‘취재기’, ‘유학기’, ‘해외 사정 소개’ 등을 주요 키워드로 삼았다. 이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를 계량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국토 기행’은 ‘백두산행’, ‘고흥여기’, ‘부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을 제목에 포함한 기행문을 의미하며, ‘취재기’는 기행문 속에 특정 사건이나 대상을 취재 대상으로 삼은 기행문을 의미한다.¹⁾ 이러한 기행문에는 시대와 사회 현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비해 ‘명승’ 관련 기행담론은 앞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락’이나 ‘탐승(探勝)’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외 사정에 대한 경탄이나 관념적 계몽 의도가 강조되었던 1910년대의 기행 담론과는 달리 1920년대의 해외 기행이나 유학 체험기는 개인의 유학 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계량화하면 다음과 같다.

(1)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기행 관련 자료의 분포

내용 문종	국토	기타	명승	순수	시찰	유학	취재	탐험	해외	계
기사	2	1	1		2		6			12
기타		2	1			1		1	3	8
기행	11	3	2	4	2	3	18		6	49
논설		6					1			7
사진	2									2

1) 취재기 가운데 일부는 특정 사건을 취재하면서 해당 지역 답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재기와 국토 기행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시									1	1
편지						6				6
계	15	12	4	4	4	10	25	1	10	85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행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취재기’ 형식의 기행문(25종)과 ‘국토 답사’ 형태의 기행문(15종), 유학 관련 담론(10편)이 차지하고 있다. 취재기 형식의 기행문 작가로는 이 시기 『동아일보』 기자였던 공민(羅公民)의 ‘석왕사에서’, ‘만주 가는 길에’, ‘노령(露嶺) 견문기’, 유광열의 ‘대구행’, ‘표랑 서북기’, ‘개성행’, ‘중국행’ 등이 대표적이며, ‘국토 답사’ 형태의 기행문으로는 민태원의 ‘백두산행’, 소일생의 ‘금강유기’, 운정생의 ‘고흥여기’, 이혁의 ‘호남여기’, 천리구의 ‘원산까지’ 등이 대표적이다.²⁾ 또한 유학생 기행으로는 김준연의 ‘라인 강반(江畔)에서’, ‘독일(獨逸) 가는 길에’, 산호성의 ‘태평양 거느는 길’, 장덕수의 ‘미국 와서’, 최영욱의 ‘미국 오시는 여러 형님께’ 등이 있다. 이 시기 유학생 기행문이나 유학 담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1910년대 주요 유학지(留學地)였던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 ‘중국’ 등이 빈번히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 기행문은 글의 형식이나 문체면에서도 이전 시기보다는 훨씬 더 사실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문의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기행 체험과 사실적 재현

1920년대 『동아일보』 소재의 기행문은 1910년대의 신문·잡지 소재의

2) 이 가운데 민태원의 ‘백두산행’은 신문사 주최 답사단으로 참여한 기록이며, 천리구의 ‘원산까지’는 철도회사 주최 남량 열차 여행단원으로 참여한 기록이지만, 취재기가 특정 사안을 취재하는 데 비해 이 두 작품은 기행 과정의 견문과 정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국토 기행에 포함하였다.

기행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수가 많고, 기행문의 필자도 많아졌다는 점에서 기행문이 본격적인 장르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인 ‘유기(遊記)’ 형식의 기행 장르가 1910년대 『소년』, 『청춘』, 『매일신보』의 견문기를 거쳐 1920년대에 이르러 양적,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10년대 이후의 ‘기행 체험’과 관련된 글쓰기 문화가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재학(1909)의 『실용응용작문법』(휘문관)이나 이각중(1911)의 『실용작문법』(박문서관)에서 ‘기(記)’의 하나로 ‘유기(遊記)’를 쓰는 법을 설정한 바 있고, 1910년 이후에는 다양한 형식의 여행기가 등장한다. 특히 『소년』과 『청춘』은 편집진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참여하여 견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2) 少年文壇

‘少年文壇’은 우리 讀者 諸君의 河海를 傾하고 風濤를 驅할 壇場이라. 感懷를 書함도 可하고 見聞을 記함도 可하고 日記를 寄함도 可하고 課文을 投함도 可하고 吾鄉의 風土를 誌함도 可하고 先輩의 經歷을 錄함도 可하고 詩詞도 可하고 書翰도 可하나 行文 結辭하난 사이에 힘써 眞境을 그리고 實地를 일터 말디니 執筆人은 詞燥에 富한 것도 取티 아니할 것이오 結構에 妙한 것도 擇티 아니하며 다만 거뒀말 아난 듯한 것과 首尾가 相接하야 이르러 한 뜻이 닛타난 것이면 罅를 터이니 이에 着念하시어 이러한 글이면 續續 投稿하야 執筆人으로 하야곰 蔚然히 曜하는 麟風과 鏘然히 鳴하난 韶鈞에 驚心驚眼케 하시오.-『소년』 제1권 제1호, 신문관, 1908. 11.

(2)는 1908년 11월에 창간된 『소년』의 독자 투고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에는 투고할 글의 특징과 글쓰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견문기, 일기, 풍토지, 전기, 시사, 서한’ 등과 같은 글은 일반 대중들

도 쉽게 쓸 수 있는 글로 인식하고 있다. 글을 쓰는 태도에서는 ‘진경(眞境)을 그려내고 실지(實地)를 잃지 않을 것’과 ‘진실할 것’을 조건으로 천명하였다. 이 안내문에는 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에 해당하는 ‘독자필준(讀者必遵)’이 부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讀者必遵

ㄱ. 眞實을 일티 말 일: 假令 兒孩 둘이 노리를 가고도 成句가 있다고 ‘冠童六七八’이라 하던디 秋成時의 敍事에 傳習이라고 먹디도 아니한 ‘黃鷄白酒’를 쓰든디 늦게 이터난 것을 남에게 알니기 붓그럽다 하야 日高三丈한 뒤에 이터나고도 日記에는 ‘텃닭 울면서’라 하든디 어린 兒孩에게는 當티도 아니한 公共事業의 經營과 酒煙에 關한 일을 쓰든디 하난 것은 다 그덜말이라.

ㄴ. 簡要을 芻蕘할 일: 쓸데업난 敍景과 誇大 訥 記事를 避할 것이니 假令 ‘어데더녁 八時에 우리 아버님이 서울노부터 還宅하시디’하면 다 될 것을 緊한 聯繫도 업난 것을 ‘오래 留京하시면서 學校 設立 일에 奔走하시던 아버님 띄서 여데 서울노서 還宅하시난데 다락원 酒幕에서 點心이 늦게 되고 議政府 안말에 親知을 타디서 이력더럭 遲滯가 되야 밤 八時나 되야 抵達하시엇난데 晝에 으스름 달은 건넌 山에 微照하고 洞里 人개들은 서투른 검은 옷을 덧더라’ 하난 것은 아듀 안 된 글이니 쓸 句와 할 말만 꼭 너흘 것이라.

ㄷ. 居住姓名을 明記할 일 …(中略) … 또 한 가디 말삼할 것은 本誌가 少年 文學을 主張하야 發刊함이 아니라 다만 讀者의 글을 獎勵도 하고 구경도 할 次로 이 文壇을 肅인즉 만은 紙幅을 割愛하기는 事情이 어려운즉 아뭇 妥當 短文을 歡迎할 수밧게 업난디라. 不得已 左의 規定을 베프러 制限하노니 이에 着念하야 어기디 말도록 하시오.³⁾ -『소년』 제1권 제1호, 신문관, 1908. 11.

(3ㄱ, ㄴ)은 독자로서의 글쓰기 요령을 설명한 항목으로, ‘진실하게 쓸 것’과 ‘간명하게 쓸 것’은 글쓰기의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전문기, 일기,

3) ㄱ ㄴ ㄷ의 기호는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임.

풍토지, 서한' 등의 글에 진실성과 간명성이 강조됨으로써 이 시기의 글쓰기는 '객관성', '재현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리얼리즘의 보편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서 1910년대 『청춘』이나 『매일신보』 소재 기행문도 전근대적 유기(遊記)나 탐승기(探勝記)와는 달리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는 기행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특히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취재기나 탐방기는 사실성이 강하며, 제한적이거나 사회 고발과 같은 비판 의식이 내재될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에서 1920년대 『동아일보』 기행문은 1910년대의 기행문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4) 大邱行(一): 夕陽이 빛기인 漢江鐵橋와 덧업시 훌러가는 타임의 勢力編輯局長에게 大邱에 내려가서 愛國婦人團의 公判을 듯고 오라는 말씀을 듯기는 六日 午後 여름 해발이 서으로 기울어질 새이엇섯다. 나는 이제에 오래 憧憬하든 그들의 面影을 보갯다 하는 것뵈과 엇더케 하면 熱誠으로 읽어 주시는 百萬 讀者들에게 遺憾업시 迅速하게 보게 할까 하는 근심도 적지 아니하였다.

기우러져 넘어가는 저녁 해발이 二等室 琉璃窓에 고요히 비춰는데 나는 釜山行 列車 乘客 中の 한 사람이 되었다. -유광열(1920), '大邱行(一)', 『동아일보』 1920. 6. 17.

(4)는 이 시기 동아일보 기자였던 필자가 1920년 6월 7일에 열린 '애국부인회' 공판⁵⁾을 보기 위해 대구로 가면서 적은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

4) 최재학(1909: 35)에서 "유기(遊記): 凡天下의 名山大川 廣都와 名勝舊蹟苑花月の 遊賞이 皆此에 屬하니"라고 하였듯이, 전근대의 유기(遊記)나 탐승기(探勝記)는 대상에 대한 유상(遊賞)을 중시하는 형태의 글이다.

5) 애국부인회는 1919년 4월 임시 정부 지원과 항일 독립 투쟁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이다. 1920년 6월 1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대한청년의교단과 대한애국부인단의 제 1회 공판 방청 속기록'에는 이 단체의 조직이 1919년 3·1 운동으로 투옥된 독립 운동

자의 여로(旅路)는 견문(見聞)이나 행락(行樂)보다는 비감(悲感)이나 시대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표출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5) 大邱行(二)

(前略)平生의 光榮? 祖國을 爲하여 피를 흘려 世上일은 그리야 할 것! 이때에 언뜻 나의 안즌 건너편 倚子에 一名의 日本人을 보았다. 년기가 四十은 너머 보히고 흉상스럽게 싱기여 한번 보면 무서운 感想이 날 만한 사람이다. 그의 한편 뺨에는 긴 칼 痕迹이 나마 있다. 나는 그의 칼 由來를 想像하여 보았다. 그가 戰爭에 나가서 자기의 祖國을 爲하여 피를 흘니다가 敵軍에게 마즌 칼자국인가?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다시 나도 쓸 데 업는 걱정을 왜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마음을 가라안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容易히 가라안지 않는다.

눈 쓰면 눈 앞에 얼굴에 칼 痕迹이 잇는 日本人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해쓱하게 세인 愛國婦人團의 얼굴이 어렴풋이 想像된다. 자기의 나라를 爲하여 피흔적을 永遠히 面上의 記念을 남긴 것을 볼 때에 나는 世上일은 다 그러타 하였다. -유광열(1920), '大邱行'(二), 『동아일보』 1920. 6. 18.

(5)에서 기자는 맞은 편 일본인을 보면서 애국부인단의 얼굴을 떠올린다. 기자의 말대로 '일본인도 그의 조국을 위해 피의 흔적을 남긴 것'이라는 표현은 식민 지배자와 독립 운동가를 구분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당시의 시대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행 속에 담긴 사건과 시대 현실이다. 달리 말해 기행의 체험과

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선여학교 교사 오현주, 제중원 간호사 이정숙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혈성애국부인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단체는 1919년 5월 회장 김마리아, 부회장 이혜경, 서기 신의경, 임시 서기 박인덕, 부서기 임원을 선정하여 독립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동아일보』에서는 1920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 공판 기록을 게재하였으며, 삼일월이라는 필명의 기자는 1920년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7회에 걸쳐 '대구에 갇든 일을 김마리아 형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느낌이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서 재현되는 과정이다.

1920년대 전반기의 기행문은 필자의 감정 표현 방식이 직설적이고, 문체에서도 다양한 종결어미를 상황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을 살펴보자.

(6) 감정 표현과 사실적 문체

ㄱ. 千里의 夏路 : 씨들만한 서울! 奔走히 씨드는 서울! 드러운 냄새 만흔 서울! 南大門에서 汽笛 한 소리로 이 서울을 作別하고 北向車에 한 사람이 되었다. 오리 동안 이러한 서울의 空氣를 마시며 이러한 서울의 물을 먹으며 이러한 서울의 짜를 밟으면서 씨들 속에 씨드는 소리 속에 검은 냄새 아린 뒤굴고 헤매며 골치 아픈 나는 어니 監獄을 버서나 自由로운 몸으로 두 날개를 버리고 푸른 하늘 우호로 등실등실 날아가는 듯한 늦김이 가득했다. M 社長の 定해 주는 자리에 안저 車內를 한번 둘러 보았다. 日本人 朝鮮人 등이 꽤 만히 올났다. 그들의 이마에는 眞珠갓튼 흰 땀이 방울방울 어리워있다. (중략) 쉬지 안코 다라나는 汽車는 벌써 一山驛을 지나 푸른 별판으로 다라난다. 少女에게 부채질도 해 주고 사이다도 사 주며 이야기도 해 주든 나는 窓을 열고 밖갓을 내다본다. 綠陰과 芳草로 휘싸인 적은 山머리에는 白雪갓흔 흰 구름이 閑暇히 움직이고 잇스며 山기슭 樹木이 옥어진 나무그늘 아래에는 二三軒의 적은 茅屋이 자는 듯이 숨어 있다. 그리하고 鐵道 左右에는 (中略) 나는 隱然中 이 風景에 깊히 醉하야 정신업시 바라보고 있다. -노자영, ‘千里의 夏路’(一), 『동아일보』 1920. 8. 27.

ㄴ. 釋王寺에서 : 洗浦는 京元線에서 ‘썬해미야’라고 싫다. 나는 ‘썬해미야’를 본 적이 업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썬해미야’를 뵈이면 만다시 洗浦를 聯想케 하오리다. 汽車가 鐵原에서 劍佛浪을 지나올 때에 한 便 ‘툰넬(터널)’에서 소리가 싸지기 前에 머리가 쏘다른 ‘툰넬’을 차저드러가서 한 골을 지나면 다음 골은 漸漸 더 깊고 한 山을 지나면 다른 山은 漸漸 더 덥퍼진다. 瞬間의 暗黑에서 刹那의 明界를 通過할 때에 나의 意識은 더욱 明敏하더이다. - 공민(1920), ‘釋王寺에서’(一), 『동아일보』 1920. 6. 20.

(6-7)은 경성을 떠나 진남포로 가는 여정을 그린 기행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성의 모습을 ‘분주함’과 ‘냄새 나는 곳’으로 묘사하고, 경성을 떠나는 심정을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것’에 비유하였다.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차창 밖의 현실을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필자의 감수성이 넘쳐 난다. (6-8)에서는 사실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독백체의 문장과 자유로운 시제 구사가 나타난다. ‘본 적이 업소’나 ‘하더이다’와 같이 청자를 전제로 한 문장과 ‘십다’, ‘덥퍼진다’와 같은 자기표현의 문장이 뒤섞이면서도 독해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1920년대의 기행문은 문장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사실적 글쓰기의 한 장르로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

3. 자의식과 국토 의식의 성장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선 시대와 달리 자의식과 국토 의식을 드러내는 글이 많다는 점이다.⁷⁾ 1920년대 국토 순례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1923년 4월부터 개벽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우리 전 국토의 생활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⁸⁾ 이 조사

6) 문체의 진보라는 차원에서 1900년대 기사문의 전언체(傳言體) 종결형인 ‘-더라’형이 ‘-소’와 같은 독백체 또는 ‘-한다’와 같은 서술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데에는 기행문이 갖고 있는 현장 의식 또는 사실성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7) 국토 순례 기행문에 대해서는 구인모(2007)의 “국토 순례와 민족의 자기 구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군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근대성 체현의 과정을 살폈다.

8) 『개벽』은 1920년 6월 25일 이돈화를 편집인으로 하여 발행한 천도교계 계몽 잡지이다. 창간호 창간사에서 “소리 | 있어 넓히 世界에 傳하니 온 世界 모든 人類 | 이에 應하여 부르짖기를 始作하도다. (중략) 時 | 開闢하고 事 | 開闢하고 人物이 開闢하는 此際에 吾人으로 이 開闢史를 쓰게 됨은 實로 時에 適, 事에 適, 精神에 適하는 神의 要求라 아니할 수 업도다.(하략)”라고 하였듯이, 1926년 8월 1일 폐간되기까지 사회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점에서 『개벽』과 『동아일보』는 친근성을 보이는 매체인데, 농촌계몽, 문맹퇴치, 문자보급운동 등은 두 매체가 모두 관심을 기울

사업에 대해 『개벽』 1923년 4월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7) 朝鮮文化의 基本調査

本社의 今年 中 大計劃-朝鮮의 現狀 調査에 依할 各道 道號의 刊行-社友制의 期成에 伴할 十三道 役軍의 糾合 (中略)

天下의 無識이 남의 일은 알되 自己의 일을 모르는 것만치 無識한 일이 업고 그보다 더 無識한 것은 自己네의 살림살이 內容이 엇지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가티 無識한 일이 업다. 보라 우리 朝鮮 사람이 朝鮮 形便이라 하는 自己의 살림살이의 內容을 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남의 일은 잘 알되 自己의 일은 比較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남의 살림살이는 잘 批評하되 自己의 살림살이는 어찌 되어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만흐다. 우리는 이 點을 甚히 慨嘆하게 보아 今年의 新事業으로 朝鮮文化의 基本 調査에 着手하며 尼여써 各道 道號를 刊行하기로 하얏나니 이는 純全히 朝鮮 사람으로 朝鮮을 잘 理解하자는 데 잇스며 朝鮮 사람으로 自己네의 살림살이의 內容을 잘 알아가지고 그를 自己네의 손으로 處辨하고 整理하는 聰明을 가지라 하는 데 잇는 것뿐이다.(中略)

이번에 우리가 各道를 踏査할 標準은 ▲ 諸社會問題의 原因 及 趨向 ▲ 中心 人物 及 主要 事業機關의 紹介 及 批評 ▲ 人情風俗의 實際 如何 ▲ 産業 教育 及 宗教의 狀況 ▲ 名勝 古蹟 及 傳說의 探査 ▲ 其他의 一般 狀勢에 關한 觀察과 批評 京城 開闢社-『개벽』 1923. 4.

개벽사의 ‘조선 문화의 기본 조사’는 1923년 4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1925년 6월 황해도호가 발행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7)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조선 알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답사 조사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인정이나 풍습, 명승·고적, 전설 등의 다양한 기행문이 산출되었는데, 비록 ‘국토 순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산출된 기행문은 ‘조선 의식’ 또는 ‘국토 의식’을 전제로 한 기행문으

인 계몽 분야였다.

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전반기부터는 자의식의 성장이나 ‘조선 의식’을 전제로 한 기행문이 다수 나타난다.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의 기행문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민태원의 ‘백두산행’, 소일생의 ‘금강유기’, 운정생의 ‘고흥여기’, 이혁의 ‘호남여기’, 천리구의 ‘원산까지’ 등은 이러한 유의 기행문이다.

(8) 白頭山行

咸南道廳의 主僱로 白頭의 거룩한 품에 안기여 보기를 願하고 모여든 二十名은 豫定대로 八月 八日에 惠山驛을 向하여 咸興을 出發하게 되었다. 中에는 白頭山의 거룩한 소문을 듣고 一生의 經營으로 그 雄衛英靈의 氣에 接코자 하여 參加한 이도 있고 또는 自己의 본 것 들은 것을 다만 自己의 抱負됨에 그치게 하지 안코 넓히 江湖에 나누어 그 질거움을 갖히하라는 操觚者流도 五六人이나 參加하였다. 나는 그 中의 한 사람이다.

나는 붓을 싣고 白頭山을 向하여 出發한다. 안이 諸君은 부지럽시 웃지를 마라. 如椽大筆을 싣으나 一枝秃筆을 싣으나 點에 잇서서는 다 一般이다. 그러므로 文筆에 拙하기 나와 갖흔 者로도 것침없시 붓을 싣고 云云 勇氣가 난다.(中略) 옷을 들고자 하면 것을 들어야 할 것이요, 물을 말하고자 하면 먼저 그 根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갖치 朝鮮의 山水를 보고자 하면 먼저 白頭山을 보고 다음 金剛山을 보아야 될 것이다. 白頭山은 朝鮮山岳의 朝宗이며 頭腦요 金剛山은 脊樑이다.(下略) -민태원, ‘白頭山行’ (一), 『동아일보』 1921. 8. 21.

민태원의 ‘백두산행’은 이 시기 함남도청 주최의 탐방 답사 과정에서 산출되었다. 당시 도청은 식민 지방 관청이었으므로, 이 행사 개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⁹⁾ 그럼에도 이 기행문에는 이 시기

9) 이 시기 각 사회단체나 지방 단체에서는 관광·행락 목적의 유람단이나 관광단을

조선인들에게 ‘백두산’과 ‘금강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 준다. 백두산은 ‘조선 산악의 조종’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우리 민족의 뿌리라는 의식이 잠재해 있으며, 금강산은 백두산의 척추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식민 시대 국토애와 무관하지 않다. 국토에 대한 사랑은 곧 민족애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이와 같은 국토애가 1920년대 전반기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구인모(2007)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군 사상’이나 ‘불함 문화’ 등은 1910년대 최남선이 제기했던 사상이다. 예를 들어 『청춘』 제14호(1918. 6)에는 ‘백두산’ 화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9) 白頭山

이 그림은 白頭山頂의 火口湖를 보인 것이니 지난 光武六,七年頃에 露國人 누가 撮影하여 傳한 것이라 天池라고도 하고 關門潭이라고도 하고 龍潭이라고도 하는 것이니 豆滿, 鴨綠, 松花三江의 源이 此에 發하니라. 대저 白頭山은 支那人은 長白山이라 하고 滿洲人은 歌爾民商堅阿隣이라 하고 古에는 不咸山, 太白山, 或 白岳이라 하여 大東에 屹立한 巨靈의 天柱라 檀君의 基業이 實로 此地에 肇하고 …(下略) ‘백두산’(화보와 설명), 『청춘』 제14호, 신문관, 1918. 6.

『청춘』 제14호는 최남선의 역사의식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잡지이다. 이 잡지에 기고한 최남선의 ‘계고차존(稽古筭存)’은 “서론, 제1기 단군시절, 제2기 부여시절, 상고 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대 위인을 모아 ‘기인비관(其人備官)’¹⁰⁾을 꾸미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최남선은 우리 역사의

조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 단체가 조직했던 관광단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식민 통치 과정에서 관광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며, ‘시찰단’, ‘관광단’, ‘유람단’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시찰 활동이나 유람 활동이 이루어졌다.

10) ‘기인비관’은 역대 인물을 전형하여 당시의 관직에 가장 적합한 역사 인물이 누구인

요람지가 ‘태백산하 송화강 상류’ 곧 ‘백두산’이라고 계고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1920년대 『동아일보』의 단군 영정 현상 모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동아일보』는 창간 직후인 1920년 5월 대대적으로 ‘단군 영정 현상 모집’ 광고를 내었다. 이때 모집 대상은 존상(尊像), 화본(畫本), 화(畵) 등이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기자들의 취재기나 답사기 가운데는 민족적 자의식과 국토 의식을 반영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기행 문화는 ‘치안 유지법’ 이후의 국토 순례 기행문의 토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4. 해외 기행 및 유학생 담론

기행 체험이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은 1920년대 전반기 해외 기행이나 유학생들의 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해외 기행 가운데 주목할 것은 1920년대 ‘만주’ 및 ‘중국’ 관련 기행문이 다수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만선사관¹²⁾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지식인들과 부일 협력자 또는 친일 조선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는 ‘만주’와 ‘조선’의 지리·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에도

지를 안배한 표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민족 발전에 대한 희망을 표출한 결과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1) 1925년 1월 30일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사상범 처벌뿐만 아니라 농촌 계몽, 문화 운동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달리 말해 1920년대 이른바 ‘문화 정치’의 유희적 식민 통치가 192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기행 담론이나 기행문의 내용 변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12) 만주와 중국에 대한 관심은 1910년대 중반기 본격화된 일제 식민 관학자들의 ‘만선사관(滿鮮史觀)’의 영향으로 보인다. 만선사관은 조선을 강점한 일본이 조선의 역사를 만주의 부속품으로 간주하거나, 조선을 지배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역사 논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는 1915년 이후 『매일신보』의 ‘사설’에 비교적 자주 등장한다.

만주와 중국 관련 기행문이나 유학 담론이 다양하게 실렸다. 다음과 같은 글이 대표적이다.

(10)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의 만주·중국 담론

시작일	종료일	문종	제 목	내용	필자	횟수
1920. 04.19.	1920.07.03.	기행	상해잡신	중국의 문화운동, 사회운동, 배일운동, 구국운동 소개	주요한	10
1920. 06.23.	1920.07.09.	기행	만주 가는 길에	6월 17일 경성에서 진남포까지 가는 과정	공민	12
1920. 07.11.	1920.07.13.	기행	중국 여행기		권태용	3
1921. 05.06.	1920.07.16.	기행	길림에서 북경에		이수형	54
1922. 04.21.	1922.04.23.	기행	북경 기행	세계 기독교 학생 동맹 참관기	여운홍	3
1922. 06.06.	1922.06.13.	편지	북경에서-중국 유학 안내	중국 유학 안내	양해청	8
1923. 06.10.	1923.08.05.	기행	중국행		유광열	4
1923 .07.22.		기타	임성 토비 탐험기 : 모국 관계설과 비도의 내정	중국 내의 비적 토벌 탐험기	여운형	1
1923. 11.07.		기사	刺身鬼의 모여드는 마굴 탐방기			1
1924. 04.21.	1924.05.26.	기행	중국 불교의 영지 오대산의 탐승	월요판에 연재	이수형	6

(10) 가운데 주요한의 ‘상해잡신’이나 양해청의 ‘중국 유학 안내’는 기행문은 아니지만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중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상해잡신은 중국의 5·4 운동을 비롯한 문화 운동 소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북경에서-중국 유학 안내’는 필자가 K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유학 안내문이다.

(11) 1920년대 중국의 의미

ㄱ. 記者는 前稿에 五一, 五四, 五五, 五七, 五九의 五個句를 連記하였소. 이 다섯 가지 記念日 中에 中國의 新文化 運動, 社會運動, 排日運動, 救國運動이 다 包含되었스니 이것이 青年 中國의 表象이라 하여도 無妨하다 하오. (下略) -송아, ‘상해잡신’, 『동아일보』 1920. 5. 26.

ㄴ. (前略) 그러면 엇더케 하여야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잇습지요? 勿論 훌륭한 學校를 만히 設立하는 것이 第一 完全하고 第一 偉大한 方針이겟고 講習所라던지 夜學갓흔 것을 만히 만드는 것도 臨時的 必要 手段이겟사오나 萬一 適當한 곳이 잇다 하면 外國 留學도 亦 그 一策이라 하나이다. 여기에 中國 留學 問題가 自然히 생겨날 줄 아노니 大概 米國 留學, 獨逸 留學, 英國 留學, 法國 留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不必要한 것은 아니나 우리의 現在 事情으로는 安만하여도 이것이 普遍的으로 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또 東洋에서 普通 知識을 엇지 못하고 西洋에 留學하는 것이 眞正한 效果를 잇는지는 疑問이라고 할 수갓게 업슨즉 우리는 不可不 日本 留學과 中國 留學에 對하여 研究하지 안을 수 업슬가 하나이다.

K兄! 그뿐 아니라 日本에 엇더한 學校가 잇고 費用이 얼마나 든다든지 또는 그의 學制가 엇더하다는 것은 우리 同胞 中에 임의 이는 이가 만흔즉 그의 方針을 定함에는 別問題가 업슬 것 가트나 中國 留學을 希望하는 이에 게는 이것이 큰 問題인 것 갓습니다. (下略) -양해청, ‘북경에서-중국유학안내’-(一), 『동아일보』 1922. 6. 5.

(11ㄱ)은 기자였던 주요한이 중국의 문화 운동을 소개하는 글의 일부이

다. 중국을 ‘청년 중국’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이유가 중국의 문화 운동이 ‘신문화 운동, 사회 운동, 배일 운동, 구국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11ㄴ)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대상지로 서양이 아닌 ‘일본’과 ‘중국’을 거론하고 있는 글이다. 이처럼 1920년대 전반기 중국 관련 담론은 ‘우리의 인접 국가로 우리와 소통해야 할 지역’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다. 인접 국가로서 만주와 중국의 의미는 공민의 ‘만주 가는 길에’나 이수형의 ‘길림에서 북경에’, 유광열의 ‘중국행’ 등에도 반영된다. 이들 기행문에는 재만 동포의 삶이나 흑룡강 및 사할린 이주민의 삶이 그려져 있으며, 일부 작품에는 중국의 명승·고적, 전설 등도 다채롭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11ㄴ)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 미국, 일본 등지의 유학 관련 담론이나 기행문도 다수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독일 유학기로는 김준연의 ‘백림에서’, ‘라인 강변에서’, ‘독일 가는 길에’가 있고, 미국 유학기로는 장덕수의 ‘미국 와서’, 최영욱의 ‘미국 오시는 여러 형님께’가 있다. 이러한 유학기의 주요 내용은 유학 가는 길의 체험, 유학 생활의 어려움, 유학 생활에 필요한 지식 등이었다.

이처럼 해외 기행과 유학 담론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의 여행 문화의 실상들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 건느는 길’의 부산역과 연락선 탑승전의 장면을 살펴보자.

(12) 태평양 건느는 길=仁川에서 東京까지

(前略) 下午 七時 頃이 되어 불 만흔 釜山 停車場에 만흔 乘客을 숨차 허덕이는 汽車는 吐하였다. 제각기 자리를 占領하고져 야단스럽게 連絡船을 향하여 다라났다. 一行도 그런 慾心이 업지 아니하여 다름질하였다. 쓰킨 줄 알엇든 비는 아직도 보슬보슬 나렸다. 連絡船 오르는 다리에는 아마 世界에 獨特한 所謂 旅行 證明書라는 것을 調査하는 二三의 씩금 나리가 눈을 번개 갖치 휘둘르면서 或 朝鮮人을 窺치지 아니할까 하여 도릿도릿 서 잇섯다. 사 람들은 서로 眈眈하고 야단하는 판에 우리도 끼여서 生存競爭을 試하여 보았

다. 내가 旅行券을 내여 보이매 싹금 나리 치고는 덜 싹금거리는 朝鮮 巡査(이의 職分은 證明書에 圖章 찍는 일)가 이것은 어데 가는 것이냐고 못는다. 米國 가는 것이라 對答하매 그는 놀내는 듯이 어서 그냥 드러가라 한다. (中略) 부끄럼도 업고 禮도 도라보지 안는 日本 船客들은 오직 혼도시 하나만 차고 십벌건 살을 드러내놋코 누었다. 傭해는 女人들이 또한 그런 모양으로 누어 있다. 連絡船 구경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되 이 光景이 몹시도 눈에 띄워 견딜 수 업섯다. (下略)-珊瑚聲, '太平洋 건느는 길'(六), 『동아일보』 1921. 9. 28.

(12)에는 필자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연락선을 타는 장면과 배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당시 여행증명서 검사 제도와 조선인 차별, 조선인 순사의 별명(싹금)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¹³⁾ 이처럼 1920년대의 기행문은 시대의 창이자 사회의 통로로서 사실을 재현하는 보편적 장르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이 기행문의 사실적 문체는 미문 중심의 글쓰기에서 현장감 있는 표현 양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이 연구는 1920년 4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동아일보』에 소재한 기행담론과 기행문 자료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1920년대 전반기 기행문의 특징

13) 식민 시대 선박이나 철도 이용, 여행 등에 대한 통제는 1910년대에도 존재했다. 조성운(2011: 47)에 서술한 일본 육군성의 '만한지방 수확여행'의 규정이나 각종 시찰단의 규정, 1911년 7월 20일에 시행된 '숙박규칙' 등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식민 통치를 위한 것이든 이 시기 존재하는 규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선박 승선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다. 그러나 1925년 1월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단순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문화운동이나 계몽 운동도 계몽성보다는 오락성을 강조하거나 총독부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농촌 운동 또는 민족 운동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강했다.

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시기 『동아일보』에는 85종 501회의 기행 자료가 분포하며, 그 가운데 기행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9종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행 담론의 분포에서는 ‘취재기’ 형식의 기행문(25종)과 ‘국토 답사’ 형태의 기행문(15종), 유학 관련 담론(10편)이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취재기는 기자의 취재기나 탐방기가 중심을 이루며, 국토 답사의 경우 특정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기행문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취재기와 답사기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자의식의 성장 과정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행 체험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차원에서 이 시기 기행문은 보편적 글쓰기의 한 양식으로 변화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1908년 『소년』 창간 이후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20년대 전반기의 경우 기행문은 체험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성과 비판 의식이 내재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셋째, 1920년대 전반기 기행문에서는 자의식과 국토 의식의 성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개벽사의 ‘조선 문화 기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에도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비롯한 국토 기행문이 다수 게재되었는데, 이러한 의식의 뿌리는 1910년대 최남선의 역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해외 기행과 유학 담론의 변화이다. 특히 해외 기행의 경우 만주와 중국 기행문이 많으며, ‘독일’,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유학 담론과 유학생기가 다수 출현한다. 이러한 해외 기행 자료에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데, 이처럼 기행 자료를 통해 시대상을 독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행문이 글쓰기나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생활사를 규명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곽승미, 『『소년』소재 기행문 연구-글쓰기와 근대 문명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pp.5~27.
- 구인모, 『국토 순례와 민족의 자기 구성-근대 국토 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2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pp.128~152.
- 김경남, 『1920~30년대 편지글의 형식과 문체 변화』,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pp.189~212.
- 김경미, 『이광수 기행문의 인식 구조와 민족 담론의 양상』, 『한민족어문학』 62, 영남대 한민족어문학회, 2012, pp.279~313.
- 김중철, 『근대 기행 담론 속의 기차와 차내 풍경-1910~1920년대 기행문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4, pp.307~332.
-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2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pp.16~32.
-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유학생 기행문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pp.241~272.
-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연구』 16, 현대문학연구학회, 2001, pp.95~129.
- 문혜윤,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2008.
- 박기혁, 『창작 감상 조선어 작문 학습서』(구자황·문혜윤 편 소재, 경진, 2011).
- 박진숙, 『기행문에 나타난 제도와 실감의 거리 근대문학』, 『어문론총』 54,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pp.119~148.
- 복도훈, 『미와 정치: 국토 순례의 목가적 서사시』, 『한국근대문학연구』 6, 한국근대문학회, 2005, pp.37~62.
- 서광진, 『조선명승실기』, 경성 대동사, 1914.
- 신지연,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재현성-1910년대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 원문사 편집부, 『소년』, 원문사, 1977.
- 이각중, 『실용 작문법』, 박문서관, 1911.
- 이경순, 『1917년 불교계의 일본 시찰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pp.49~82.
- 이운재, 『문예독본』, 한성도서, 1931.

이한섭 편저, 『서유견문』, 박이정, 2000.

조성운,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 시찰단』, 『한일민족문제연구』 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pp.2~36.

조성운, 『1910년대 일제의 동화 정책과 일본 시찰단』, 『사학연구』 80, 한국사학회, 2005, pp.191~228.

최재학, 『실지응용작문법』, 휘문관, 1909.

Abstract

Discussion of Travel and the Travel Essay in the *DONG-A ILBO*
in the First Half 1920's

Kim, Kyung-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cussion of travel and the travel essay in the first half 1920's. I found 501 materials in the *DONG-A ILBO*(the newspaper it's time). I divided these materials into type of material and contents(or theme).

In this time, many travel materials and essay reflected the sprit of the age and social phenomenon.

In this time, many discussions of travel relating in the journalist papers. I described these phenomenon three point. First was related in realistic reappearance. Second were self-consciousness and territorism(the ideology of territory and patriotism). Third was tour of oversea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ravel essays.

The phenomena of travels had various aspects in the first half 1920's. I think that the travel essay was generalized writing style in this time.

Key words : discussion of travel, travel essay, *DONG-A ILBO*, realistic reappearance

김경남

소속 : 건국대학교 글로벌 소통·통섭 교육원 강의교수

주소 : (130-76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삼성래미안 장안 2차 아파트 218동 1104호

전화번호 : 010-5273-9247

전자우편 : surhera@konkuk.ac.kr

이 논문은 2013년 3월 2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23일 게재 확정됨.